

Praxair, 산업용 가스 부산공장 건설

미음지구에 4000만달러 투입 ... 산소·질소·아르곤 안정공급이 목적

미국의 산업용 가스 제조기업인 프렉스에어(Praxair)가 부산에 4000만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산업용 가스 공장을 건설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5월3일 오후 부산시청 소회의실에서 프렉스에어와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4월29일 발표했다.

프렉스에어코리아는 100% 미국 투자기업으로 산소와 질소, 아르곤 등 산업용 가스를 제조하고 있으며 1975년 설립돼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

프렉스에어코리아는 여수와 기흥, 창원 등에서 생산된 산업용 가스를 삼성전자와 삼성중공업, STX 등 국내 기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2009년 매출규모는 2000억원대로 알려졌다.

산업용 가스는 공급이 하루만 중단되도 해당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큰 만큼 안정공급이 필수적이다.

프렉스에어코리아의 신규공장이 들어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는 2009년 7월 지식경제부가 부품소재 전용공단으로 지정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29>